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1호

체육시민연대 칼럼

대한체육회장은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나진균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새 정부 스포츠 정책

‘가치 지향’ 안보이는 새 정부 스포츠 정책

장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스포츠평론가)

대학스포츠협의회

KUSF, 인권친화적 대학스포츠문화 조성 위한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

황정일 한국대학신문 기자

세계육상연맹

육상 세메나 “남성 호르몬 수치 낮추는 약, 고문 수준이었다”

하남직 연합뉴스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과 함께 스포츠 사회적 가치 확산 나서

김수미 넥스트데일리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칼럼]

대한체육회장은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나진균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2014년으로 기억을 한다. 당시 대한야구협회장이었던 이병석 국회부의장에게 업무보고차 국회에 매주 방문한 기억이 있다.(당시 나는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야구팬이었던 이병석회장은 국회의원의 체육단체 겸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직을 그만두기까지 아주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했다. 그동안 여러명의 체육단체장을 옆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이병석회장의 업무스타일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 서울시체육담당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수십차례에 걸쳐 목동야구장의 아마야구 전용구장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내게는 낯선 모습이었다. 이것이 한국체육의 현실이다. 체육단체장이 소속단체에 출근하거나 직접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오히려 생뚱맞게 느껴지고 감동까지 받게 되는 것이 한국체육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KBO총재로 취임한 허구연 해설위원의 업무스타일이 야구계에서는 화제다. 매일 아침이면 일찍 출근해서 직접 업무를 챙기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을 접하는 KBO임직원들로서는 힘들게 느껴질 듯하다. 프로연맹들도 매한가지인 것이 현실이다. 왜 체육단체들은 프로, 아마 할것없이 하나같이 수장들이 출근하고 직접 일하는 것이 생경한 풍경이 되었을까?

지난해에 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결과는 낙선을 했다. 25%정도에 불과한 지지를 받았지만 나름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선거에는 졌지만 많은 야구인들이 내가 약속했던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약속에 적지않게 자극을 받은 것 같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매일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체육단체장의 출근은 아직도 체육인들에게는 낯선 모습이다. 그저 후원금 좀(?) 내고 가끔 연맹이나 협회임직원들 밥사고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패전달만 하면 되는 곳이 한국 체육단체장의 현주소다. 지금도 서울시체육회가 위치한 중랑구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상근하며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타종목 협회장이 출근하는 협회는 볼 수가 없다. 서울시 체육회나 야구소프트볼협회도 다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한국체육의 수장인 대한체육회장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매일 출근을 하고 직접업무를 챙기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한번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으니 한국체육계는 이러한 관행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굳어진 듯하다. 각각 나름의 조직운영에 대한 특성이 있고 하는 일도 다르니 일괄적으로 모든 체육단체가 출근하는 회장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나 해당조직의 장이 직접 출근하고 일을 챙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이나 단체들도 나이가 지긋한 회장님들이 매일 출근하고 회사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이다. 왜? 내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챙기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지는 것이다.

최순실, 정유라사태 이후 지난 수년간 체육계는 상당한 변화를 이뤄냈다. 각종 정관, 규정의 개정과 스포츠평정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엄격한 규정적용 등은 체육현장의 구조적인 모순과 비리들을 제거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단체장 및 회장, 임직원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 또한 바뀌어져야 한다. 단체의 수장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주인의식과 과정의 공정성, 결과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이후 통합에 따른 후유증으로 수년째 체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체육단체장의 상근화라고 생각한다. 연맹이나 협회가 그저 가끔 나가보는 조직에서 탈피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인의식이 없으면, 매일 출근해서 일할 수 없으면 연맹회장이거나 협회장을 맡지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룰이 적용되는 체육계가 되어야 앞으로 한국체육이 변화하고 실질적인 발전도 이뤄지리라 생각해본다. 한국체육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단체장들의 정상출근'이다.

2022. 05. 24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진균

‘가치 지향’ 안 보이는 새 정부 스포츠 정책

2022.05.30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스포츠평론가)



새 정부 스포츠 정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과 속도인지는 분명치 않다.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정책을 총괄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과 차관도 임명돼 업무를 개시했지만, 새 정부 출범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뚜렷한 가치 지향이 보이지 않는다.

언론계 출신이 장관으로 입각하고, 한때 대한체육회 사무를 총괄했다고는 하나 오랫동안 기획재정부 공직을 맡아 온 인물이 스포츠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차관이 됐다. 그런데 이 장·차관의 경력을 다소 기계적으로 압축해 보면, 스포츠 정책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현미경처럼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장·차관은 실무 사안을 면밀히 파악해 입안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리이긴 하다. 그런데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관마저 관직 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활동한 인물이 맡게 됐다는 것은 스포츠 정책의 중요한 사안들이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민원창구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 현미경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미래지향적인 망원경도 갖지 못한다.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제동’

일단, 새 정부가 제시한 주요 스포츠 정책을 보면 ① 전문체육 멀티소스 양성 시스템 지원 ② 실업팀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 ③ ‘체육인공제회 설립’으로 체육인 복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 ④ 스포츠 후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 ⑤ 체육재정 확대 및 체육계 지원 강화 ⑥ 실효성 있는 스포츠 인권 문제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⑦ 체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 등이다.

마지막 ⑦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어떤 성격의 정부라 하더라도 마땅히 추진해야 하는 일반적 사안이다. 이 정책들은 △생애 주기 연령대 메우기 정책 △공공과 민간 연결 △전문선수와 생활체육인 선순환 구조 구축 △융복합화·시장화·산업화 추구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진다. 다양화와 산업화로 압축되는 이들 사업 역시 21세기의 사회구조 변동에 따라 그동안 스포츠계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일반적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체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재검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김도식 인수위원과 이용 의원(국민의힘)의 수석보좌관인 문승현 실무위원이 6차례 체육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지점, 즉 ‘현장의 목소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혁신위 활동은 쇼트트랙 선수에 대한 코치의 폭행·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월 시작했다. 2020년 6월에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고 최숙현 선수가 팀 관계자들의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스포츠혁신위는 기존의 국가 스포츠 정책이 21세기의 사회구조 변동은 물론,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기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같은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미래의 스포츠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간극에 의해 수많은 선수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총 7개의 권고를 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 권고들이 현장 지도자들과 선수들에게 당장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른바 ‘현장의 목소리’가 대체로 혁신위의 권고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형성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는 해도, 혁신위의 권고가 곧바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권고의 근거와 가치를 유지하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숙의돼 섬세하게 정책화하는 과정이 전개됐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중단된 채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권고안 전체를 재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음 장 계속

‘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했나

섬세하게 살펴보면, 새 정부가 밝힌 정책 과제와 혁신위의 권고는 서로 상부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지도자와 선수의 처우개선이나 기존 메달리스트 중심 복지정책을 체육인 전체로 확산하는 보편적 복지로의 개선 등은 혁신위의 7차 권고 안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핵심은 혁신위의 2차 권고, 즉 학생선수들의 학습권·문화권·사회권 등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새 정부는 이를 다른 방향 또는 이전의 방향으로 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른바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해서 말이다.

정책을 기획하거나 결정할 때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물리적 환경이나 처우도 ‘현장’이지만 해당 분야의 종사자와 핵심 관련자들의 ‘생각’도 ‘현장’이다. 어떤 가치로 어떤 지향을 하는가, 그것이 ‘현장’이다,

현재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엘리트 선수의 운동할 권리로 압축될 수 있다. 신중하게 경청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이 ‘현장의 목소리’는, 한편 불편한 현장 상황을 가리는 측면 또한 있다.

이런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사례가 탁구의 신유빈 선수다. 고교 진학 대신 프로의 길을 선택한 신유빈 선수는 현재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부상을 입었는데, 6개월 만에 재발했다. 그가 고교 진학 대신 프로로 직행해서 부상을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그렇기는 해도, 아직 18세인 신유빈 선수가 여러 공부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대신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다. 신유빈 선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의 소속팀인 대한항공 탁구단이 감독과 코치 등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집단 괴롭힘 사건의 ‘현장’이 된 것도 그저 일개 구단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다. 한국 탁구를 대표하는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일부의 일탈”이라고 말했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생각’ 역시 ‘현장’이다.

이렇게 ‘현장’은 복잡하고 울퉁불퉁하다. 국가 정책은 이러한 현실의 복잡성 속에서 미래적 가치를 도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른바 ‘현장의 목소리’라는 근거로 일종의 민원 사항을 국가 정책화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현장’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중차대한 스포츠 정책들도 헛바퀴를 돌게 할 우려가 있다.

스포츠평론가 (prague@naver.com)

KUSF, 인권친화적 대학스포츠문화 조성 위한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2022.05.28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022. 5. 30.(월) ~ 6. 13.(월) 18:00까지

신청 바로가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를 위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전문강사를 양성하고자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대상] •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지원자(10명 내외)
* 지원할 때 관련 경력과 관련된 스포츠 관련 분야 경험자

[교육장소] • 서울시 소재 강의실(예정)후 공차

[신청기간] • 2022. 5. 30.(월) ~ 6. 13.(월) 18:00까지

[신청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kusf@kusf.or.kr) * (A4 2매)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일자: 5. 31.(화) 20:00까지 * 2차 면접 일자: 6월 중순 예정
* 면접에서 10명내외 정원이 선발될 수 있으며, 최종 10명 확정

[교육기간] • 2022. 7월 중순 5일 / 총 24시간(정규 18시간 교육)

일차	주제	시간	비고
1차	스포츠인권개론	2022. 07. 05(화) 10:00 ~ 18:00	
2차	인권교육	2022. 07. 06(수) 10:00 ~ 17:00	
3차	인권교육	2022. 07. 08(금) 10:00 ~ 17:00	비고
4차	인권교육	2022. 07. 20(수) 10:00 ~ 17:00	대우 공차
5차	숙제	2022. 07. 21(목) 10:00 ~ 14:00	

[관련문의]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지원팀: 주선 02-4444-4474

* 모집 및 교육과정 세부내용은 KUS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최 주관 **kusf**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 재정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D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 이하 KUSF)는 대학스포츠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운영한다.

이 사업은 대학운동부에 대한 이해도, 스포츠인권과 관련된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전문성 특화 전문강사 양성과정이다. 지난해 KUSF가 개발·제작한 대학운동부 인권교육 교안을 중심으로 한 대학스포츠의 인권 기본지식, 학년별 대학운동부 인권교육 교안과 전문강사 실전 강의 시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학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예정이며, KUSF는 서류전형, 강의영상·면접심사를 거쳐 7월 초에 최종합격자 10여 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는 2022년 7월 말부터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총 60회 대학스포츠인권 교육을 전담해 학생선수들에게 인권 감수성 등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USF 측은 "이번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대학운동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현장을 중점적으로 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즐겁게, 평등하게, 안전하게, 차별없게 생활하는 인권친화적인 대학스포츠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전문강사 모집 관련 내용과 지원 신청은 KUSF 홈페이지(<http://www.kus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KUSF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육상 세메냐 “남성 호르몬 수치 낮추는 약, 고문 수준이었다”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놓고 세계육상연맹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캐스터 세메냐(31·남아프리카공화국)가 "세계육상연맹이 오랫동안 나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24일(한국시간) 조만간 미국 HBO에서 방영될 '세메냐 인터뷰'를 일부 공개했다. 세메냐는 "세계육상연맹 관계자는 내게 '남성의 성기'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체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여자로 태어난 나는 2009년부터 늘 내가 여자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세메냐는 2012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육상 여자 800m 2연패를 달성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3차례 800m 챔피언(2009년 베를린 대회, 2011년 대구 대회)에 올랐다. 하지만 현재 세메냐는 주 종목인 800m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세계육상연맹은 2016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여자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규정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육상연맹 규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차별 논란이 있다"며 규정 발효를 막았다. 극적으로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세메냐는 800m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세계육상연맹은 2018년 11월에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km)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mol/L 이하로 정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mol/L, 남성은 7.7~29.4nmol/L이다. 공개한 적은 없지만, 많은 전문가가 세메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7~10nmol/L로 예상한다.

세메냐는 "나를 겨냥한 규정"이라고 격분하며 CAS에 제소했다. 이번에는 CAS가 세계육상연맹의 손을 들었다. 스위스 연방법원의 선택도 같았다. 결국, 세메냐는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세메냐는 유럽인권재판소로 무대를 옮겨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심리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세메냐는 "내가 200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 800m에서 우승한 뒤, 세계육상연맹이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베를린 대회 직후에는 병원으로 가서 '성별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은 2010년 세메냐에게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약을 먹어야 경기에 뛸 수 있다"고 통보했다. 2010~2015년, 세메냐는 세계육상연맹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약을 먹었다"며 "나는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렸다. 공황 발작을 겪었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매일 칼로 나를 찌르는 기분이었다. 고문 수준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해 11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출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고, 2023년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전 자격 결정은 경기단체에 맡겼다. 세계육상연맹은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2km)의 테스토스테론 출전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메냐도 세계육상연맹과의 다툼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과 함께 스포츠 사회적 가치 확산 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은 지난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오장수 경영혁신본부장, 소진공 임준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스포츠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 스포츠 분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대상 체력 증진 서비스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단 오장수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소진공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분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돕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공단은 여러 분야의 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단독] 尹대통령, 손흥민에 체육 최고훈장 '청룡장' 직접 수여한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30/2022053090183.html

"장애인 체육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약 1조4천억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30103300007?input=1195m>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가왕 선발전 개최... 레슬링 노영훈 1위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53014520822993>

면접 질문 자료 유출한 전 체육회 임원 등 2명 징유·벌금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6_0001886188&cID=10814&pID=10800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2 상반기 시·군장애인체육회 직원 직무교육' 개최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04009>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스포츠도박 민간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http://mksports.co.kr/view/2022/476923/>

체육교사 꿈꾼다면 지원자격·실기 여부 따져보세요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25526884?OutUrl=naver>

국민체육진흥공단,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130>

국민체육진흥공단, 미래 스포츠인재 양성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077>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